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3

“우리도 함께 뛰다”

신지애-청야니 ‘1인자 전쟁’

LPGA투어 2011 시즌 내일 태국서 개막

친환경·고품질 ‘건강 에너지원’ 공급

■ 한수원 영광원자력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 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되겠습니다.”
쟁쟁한 마라톤 실력으로 소문난 한수원 영광 원자력본부(김대겸 본부장) 마라톤 동호회가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외치며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출전한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한수원 영광 원자력 본부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3·1절 마라톤 선전을 외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영광 원자력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2007년 12월 창립했다.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을 홍보하고자 첫 발을 내디뎠던 마라톤 동호회는 이성완 회장을 비롯해 본부 회원만 40명이 넘는 지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 사이 회원들의 마라톤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이 20명에 이르고, 두 명의 회원은 마라톤이후에 큰 영광인 서브 3(풀코스 3시간 내) 기록을 보유 하고 있다.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한 회원도 10명에 이르고 200km 울트라 마라톤에 철인 3종, 해협횡단(43km) 그리고 백두대간 종주까지 해내는 등 수 명의 회원들은 수준급 실력을 갖췄다.
이중에서도 안용근(56·대외협력실장) 고문과 동호회의 마형 문철원(57)씨는 후배들 못지 않은 실력으로 ‘중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안용근 고문은 철인 3종과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철인 중에 철인. 문철원 회원도 100·200km 그리고 울

트라 마라톤까지 완주한 ‘울트라맨’으로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동호회의 굵은 일을 도맡고 하는 총무 김석봉씨 역시 철인 3종, 울트라 200km와 해협횡단까지 나서는 동호회의 만능 스포츠맨이다.
풀코스 완주 회원만 20명
김 씨는 “동호회가 출범한 이후 매년 3·1절을 새 시즌을 여는 첫 대회로 선택했다”며 “이번에도 회원들 모두 즐거운 마음

으로 출발선에 서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성완 회장은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겨울동안 다졌던 훈련을 평가할 계기이다. 또 건강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건강한 에너지’를 위한 한수원 영광 원자력본부 달림이들의 ‘건강한 질주’가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상의 장례서비스로 시민에 행복배달

■ 영락공원 관리사무소

“마라톤으로 다져진 강한 체력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소장 김남기) 직원들이 대거 출전한다.
장례도우미 유족 편의 배려
영락공원에 수 만명의 시민들이 찾은 지난 설 명절 이후 고객인 시민 응대에 지친 직원들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매진하면서 장례 도우미 및 첨단 제례시스템 도입, 광주시민과 타 지역 주민 이용요금 차별화, 광주 제1시립묘지 위탁관리 등 급속한 대책 및 사업을 마련,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김남기(56) 소장은 “설 명절이 유난히 길어 직원들이 연휴기간 이틀씩 나와 근무해 별다른 사고 없이 시민들이 성묘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싶던 차에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해 참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장사시설을 갖춘 광주 영락공원은 지난해 말 유족들이 영락공원에 도착해 장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장사절차에 대해 근접 안내하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유족 편의를 배려했다.
마라톤 통해 건강 다지기
또 올해부터는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첨단 제례시스템 도입·부부 단 및 개인단 봉안당 도입·행정정보 공동 이용·사이버 홈페이지 개편 등까지 지금 까지 다른 지자체 장례시설이나 사설시설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46회 3·1절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15일 사무소 앞에 모여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익 창출과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 이용요금을 광주시민은 종전처럼 9만원, 전남도민은 54만원, 타 지역민은 90만원으로 차등화하기도 했다. 김현(49)

부소장은 “그 어떤 장례시설보다 앞선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마라톤을 통해 직원 간 유대관계도 좀 더 끈끈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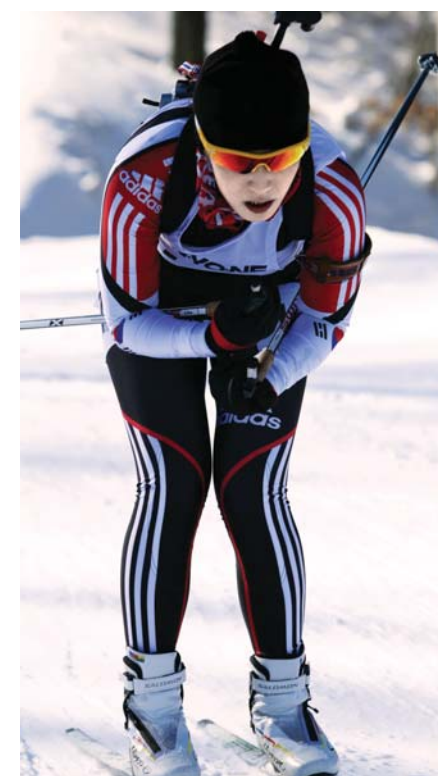
바이애슬론 문지희 전남에 첫 금

전국동계체전... 남자부 이인복 동메달

바이애슬론의 문지희(23·진도군청)가 제 92회 동계체전에 출전중인 전남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문지희는 14일 동계체전 개막 첫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15km 개인경기에서 ‘국가대표 에이스’다운 실력을 뽐내며 손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지희는 2번째 사격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 다른 선수들을 따돌렸으며 은메달을 딴 박지애(전북) 선수보다 5분05초가 앞선 56분0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앞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일반부 20km 경기에서는 이인복(27·보성군청)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문지희와 더불어 바이애슬론 종목 국가대표 남자 에이스인 이인복은 이날 경기에서 1시간04분28초를 기록, 금메달을 딴 전재익(경기)에 49초 차이로 아쉬운 동메달에 그쳤다. 사격에서 7발이나 과녁을 벗어나 7분이 가산된 것이 기록을 늦췄다.
문지희와 이인복은 16일에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문지희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 7.5km와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5km에 출전하며, 이인복은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km와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10km에 출전한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을 통해 자격증지 파문을 딛고 복귀한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

스트 이정수(22·단국대·충남)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정수는 15일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대학부 500m 결승에 출전해 42초750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어 팀 동료 한승수(42초970)와 김용성(43초230·인천)을 제치고 우승했다.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올베르 키 에르주를 동계 유니버시아드 3관왕인 이은별(20·고려대·인천)도 쇼트트랙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은별은 여자 대학부 500m에 출전, 46초030을 기록해 손수민(46초220·경희대·경기)과 최정원(46초670·고려대·서울)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아들로 잘 알려진 조수훈(단국대)은 경기 대표로 남자 일반부 5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땀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제92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에 출전한 문지희(진도군청) 선수가 코스 1위로 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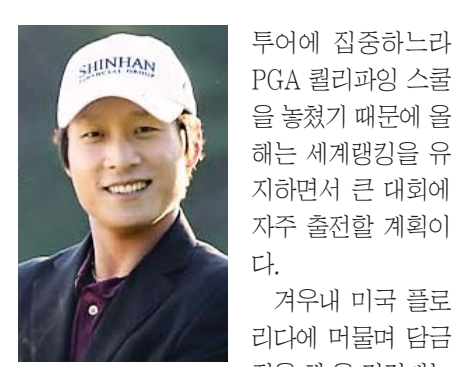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1 시즌 첫 대회가 태국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해 골프여제 로레나 오조아(멕시코)가 은퇴한 뒤 절대강자가 없어 혼전이 펼쳐졌던 LPGA 투어는 올해도 1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첫 대회는 17일부터 나흘간 태국 춘부리의 시암골프장(파72·6477야드)에서 열리는 혼다LPGA 타이랜드.
총상금 145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는 한국의 ‘원투 펀치’ 신지애(23·미래에셋·사진)와 최나연(24·SK텔레콤), 지난해 LPGA 투어 MVP로 최근 신지애를 세계 2위로 밀

어낸 청야니(대만), 디펜딩 챔피언인 미야자토 아이(일본) 외에 크리스티 커(미국) 등 상위 랭커 60명이 출전해 첫 없이 4라운드 샷 대결을 펼친다. 이 대회는 골프전문채널 J골프가 2라운드가 시작되는 18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후 4시부터 생중계한다.
청야니는 이달 초 호주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기세를 올리며 신지애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꿰찼다. 비거리 260야드를 훌쩍 넘기는 드라이버샷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 청야니였지만 경기운영 능력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 군단의 경계 대상 1호로 떠올랐다.
한국 군단이 시즌 초반부터 청야니의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시즌 내내 골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지애는 “시즌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라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새 캐디 손 클루스(호주)와 함께 개막전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새 시즌이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LPGA 투어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거머쥔 최나연은 “동계훈련에서 체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튼튼한 몸을 만들었으니 마지막 대회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지난해 못지않은 성적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日그린평정 김경태 美 PGA무대 도전

세계 30위... 노던트러스트 출전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을 차지한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공략에 나선다.
김경태는 오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리비에라 골프장(파71.7298야드)에서 막을 올리는 노던트러스트 오픈에 출전한다. 지난 8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30위로 한국 국적 선수와 한국계 선수를 통틀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김경태는 초청 선수로 이번 대회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김경태는 일본 골프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통하는 이시카와 료(20), 이케다 유타(26)와 시즌 막판까지 상금왕 경쟁을 벌이면서 JGTO를 평정했다.
이번 대회는 김경태에게 ‘시즌 첫 대회’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경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 진출을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투어에 집중하느라 PGA 퀄리파이 스텝을 놓쳤기 때문에 올해는 세계랭킹을 유지하면서 큰 대회에 자주 출전할 계획이다.
겨우내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며 탑급 질을 해 온 김경태는 특히 쇼트 게임을 보완해 시즌 첫 대회에 나선다.
올해 노던트러스트 오픈에는 2008년과 2009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필 미켈슨과 디펜딩 챔피언인 스티브 스트리커, 짐 퓨릭(이상 미국) 등 세계 상위 랭커들이 많이 출전한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와 양용은(39), 최경주(41·SK텔레콤) 등 한국 선수들도 출전한다. 여기에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과 이상욱(28·타이틀리스트)도 ‘코리안 브러더스’의 힘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이번엔 매너 때문에... 또 체면 구긴 우즈



유럽프로골프투어로부터 징계를 받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즈는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최종 라운드 경기 도중 12번홀 그린에 침을 뱉어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우즈는 트위터를 통해 “유럽프로골프투어의 결정이 맞다”며 “(침을 뱉은 행위는) 사려 깊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한번 ‘황제’의 체면을 구긴 것이다.
2009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자택 인근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냈던 우즈는 이후 여성 팬력 등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러지는 바람에 그해 12월 골프 무기중 단장을 선언했고 지난해 2월에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해야 했다. 이번에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한 사과

는 지난해 2월의 사죄보다는 가벼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2009년 11월 호주 마스터스 우승 이후 우즈는 우승컵을 차켜 들고 환호하기보다 연달아 팬들에게 고개만 숙이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 우즈는 전성기 때도 빼어난 기량에 비해 경기 매너는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거나 클럽을 집어던지는 행태를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깊은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와중에 침을 뱉었다고 벌금까지 물게 되면서 ‘황제’의 위용이 더 초라해 보이게 됐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AP통신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분류돼 400달러에서 1만6000달러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즈는 이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에 불과 1타 뒤져 있었으나 4라운드에서 3타를 잃어 결국 우승을 차지한 알바로 키로스(스페인)에 7타 뒤지면서 공동 20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근 출전한 17개 대회에서 우승이 한 번도 없다. 이는 우즈가 1996년 프로로 전향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